

남동문화재단, 남동구 주제

성인 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남동문화재단 서창생활문화센터가 남동구 주민들의 예술성과 지역 특성을 담아낸 '기억의 지도, 내가 걸은 남동' 전시를 개최한다.

29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2025 남동구 성인 그림 공모전' 수상작으로 구성된 올해 첫 기획전시로, 남동구와 관련된 풍경과 장소,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남동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재직 중인 성인들로, 일상 속에서 마주한 공간과 순간들을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화폭에 담아냈다.

전시는 1월 26일(월)부터 3월 31일(화)까지 서창어울마당 1층 마주침 공간과 2층 일부 공간에서 진행된다.

총 39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캔버스 아크릴화, 유화, 수채화 등 다양한 재료와 개성 넘치는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관람객 참여 요소를 함께 마련해 전시 경험의 확장을 도모한다.

관람객들은 전시 공간에 마련된 참여 코너를 통해 작품에 대한 관찰평을 남기거나 작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작품을 매개로 '창작자'와 '참여자'가 함께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공유의 장으로, 모인 메시지들은 또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남동문화재단 관계자는 "남동구 주민들의 손으로 그려낸 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더욱 가까이 접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모두가 전시의 주체로서 참여해 전시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계양구,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정책심의회 개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안전한 농식품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1월 28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계양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농업 관련 기관과 농업인 단체 대표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정책 심의기구로, 이날 회의에는 총 17명의 위원이 참석해 농정 분야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2026년도 농정 분야 주요 사업 추진계획과 심의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2026년 농정 분야 주요 사업은 총 4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7억 7천만 원 규모이다.

주요 내용은 ▲벼 보급증, 인공상토, 유기질 비료 등 고품질·친환경 농업 지원 ▲공익직불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 등 미래 농업인 육성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통한 소비 활성화 등이다.

인천시, 이상기후 대비 농작물 병해충 방제 네트워크 가동

기상 전망 분석부터 유관기관 공동 대응까지…현장 중심 방제 주력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타 대응 본격화



피해 최소화의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농업 현장 밀착형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송도 국제도시 8공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23일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라는 높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인천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신 교통 수요 자료와 향후 개발 계획을 반영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 가치를 수치로 입증하고, ▲교통 소외지역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정책적 필요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해 사업의 중·장기적 미래 가치와 파급효과를 입증하는 전략이 포함된다.

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 방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인천시 및 군·구 담당자와 관내 농협 병해충 관련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 지역의 기상 전망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병해충 발생 가능성을 진단했다. 또한 주요 병해충별 맞춤형 방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병해충 발생 시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래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체다. 협의회에서는 병해충 발생 현황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고, 주요 방제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병해충 예찰 방제 요령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올해는 연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강수량 변동 폭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온난한 기후 조건은 월동 해충의 생존율을 높이고 발생 시기를 앞당길 우려가 있어 예년보다 1~2주 빠른 선제적 예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병해충 발생 시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강화군,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나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관내 위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일반음식점 15개소, 생활 숙박업소 10개소, 목욕장업 5개소 등 총 30개소 규모이며, 안전하고衛생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영업장과 주방, 조리장, 화장실 등 내부 시설개선으로,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업종과 지원 한도를 조정해 영업주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13일까지 접수하며, 지원 기준과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인 문의는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032-380-3882)으로 하면 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군의 위상에 걸맞은 위생 환경과 품격 있는 서비스 기반을 조성해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외식·숙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옹진군,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간담회 개최



들의 다양하고 창신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합소희 학생은 "평소부터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분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것 같아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말했다.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0일, 옹진군청 종합의실에서 본청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동계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44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문경복 군수는 대학생들과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느낀 소감을 청취하고 건의사항과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옹진군 발전을 위한 대학생

심하린 기자

서구-전통시장 상인회, '장수누리터' 맞손

다.

또한, 전통시장 내에서 '찾아가는 장수누리터 건강상담소'와 캠페인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를 협조하고 어르신 '장수누리학교' 등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보건소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건강돌봄 '장수누리터'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상인회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건강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통시장 방문객 및 상인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보유한 건강취약계층 발굴 및 보건소 의뢰 ▲독거노인 등 사회적 단절 가구의 건강 이상 징후 포착 시 신속한 정보 공유 ▲시장 내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포 ▲상인회원 대상 '건강돌봄 장수헬퍼' 위촉 및 활동 지원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

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의뢰된 대상자에게 한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팀 통합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인회는 시장 내 주요 거점에서 사업이 원활히 흥보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장준영 서구보건소장은 "전통시장의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36.5 현장지원단' 몰입형 연수



적인 다문화·평화·생태 교육 현장을 텁텁하며,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다문화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탐방 프로그램은 ▲이주여성의 삶을 그린 시그립책 '꽃이 된 씨앗' 북토크(토산초등학교) ▲세계시민·평화교육 사례 공유(제주국제평화센터) ▲지역사회 연계 다문화교육 운영 사례 이해(제주다문화교육센터) ▲생태·문화 다양성의 공존 가치 성찰(제주 꽃자왈 숲 걷기)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2026년 현장지원단 운영 방향,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등을 공유하며 지원단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에서 발굴된 우수 사례와 정책 제안을 학교 현장에 환류하여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고 "모든 학생이 서로의 다른을 존중하며 성장하는 포용적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급변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 일대에서 '다문화교육 36.5 현장지원단' 몰입형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청 관계자와 현장지원단 등 32

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문화 교육 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 했으며, 특히 '읽기쓰기'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교육 사례 공유와 탐방 중심의 몰입형 연수로 운영된 것이 특징이다.

연수 참가자들은 제주 지역의 대표

Goheung Spaceship Terminal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2026.5.2. 토 - 5.5.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